

H K 연구 교수 임용 지원서

										접수번호							
지원분야		동아시아불교(사상, 역사, 문화)										사 진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  (가로 5cm x 세로 4cm)					
세분전공																	
성 명		(한글)			(영문)			(한문)									
1. 인적사항																	
성 별		남 · 여				국 적											
생년월일		19    년    월    일(만    세)				주민등록번호				-							
현 주 소 (국내연락처)		(우편번호 :    -    )								전화 번호		자 택 :					
												직 장 :					
현근무지												핸드폰:					
												e-mail:					
2. 학력사항																	
구 분		기 간		학 교 명				전 공		학 위 취 득 일		학 위 취 득 국		수 료 /과 정 증		평점 평균 (G.P.A)	
고등학교		-						-		-						-	
학 사		-														/	
석 사		-														/	
박 사		-														/	
학위 논문		석사		지도 교수				논문 제목									
		박사		지도 교수				논문 제목									

3. 경력사항				
기	간	근무년월	근무기관명	직위(담당업무)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4. 기타사항				

위 기록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2013년      월      일

지 원 자 :                      ①인 또는 서명

금강대학교 총장 귀하

## 연구실적 목록(최근 5년간)

**지원분야 :**

성명 :

발표구분	저자명(전원)	제 목	게재지명	발행기관	발 표 년월일

※ 최근 발표된 실적부터 3년간(2010년 10월 1일~2013년 9 월 30일)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양식/03]

## 연구 계획서

지원분야 :

성 명 :

※ 본 HK사업 아젠다와 관련한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십시오.

## 금강대학교 인문한국(HK)사업 아젠다 요약문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의 <인문한국(HK)사업의 연구 아젠다는 <불교고전어와 불교고전문헌의 연구를 통해 본 문화의 형성과 변용 및 수용과정 연구>이다. 본 사업에서 우리의 지향점은 불교문헌을 통해서 인문적 세계의 형성과 그 문화적 변용 및 수용과정을 탐구하려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불교학의 인문적 지평의 확대에 있다. 그리고 그러한 탐구의 일차적 연구대상이 불교고전어와 고전문헌인 것이다. 사업의 목적과 일차적 방법론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사업의 목적은 불교고전어와 고전문헌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문화의 형성과 변용 및 수용과정을 이해하려는 것으로, 이를 위해 국제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연구 인력과 연구시스템 및 인프라를 구축하여 인문학 분야의 선도적인 학문공동체를 구현하려는 것이다. 불교는 현존하는 세계종교로서는 처음으로 문화적 창조와 전파, 그를 통한 문화적 변용과 통합이라는 문화적 사명을 아시아 전역에서 수행해 왔고, 그 과정과 매개체는 단순히 기술이나 기법의 전달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텍스트의 번역과 해석 및 수용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인류역사상 최초의 문헌을 통한 상부구조의 전달이란 점에서 세계사적 의미를 가진다. 이를 통해 문화학적 의미에서 번역과 해석의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사상사에서 '격의불교'라 불리는 해석학적 작업이 오랫동안 진행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번역의 문제는 단순히 어떤 용어를 다른 나라의 언어로 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어가 담고 있는 인지적 틀을 다른 나라의 언어가 가진 인지적 틀로 재형성(remoulding)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고는 토착화라는 의미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보인다. 사실상 지난 세기 이후 많은 서구의 사상과 용어들이 수입되었지만, 그것을 우리의 인지구조에 맞게 다시 구조화하려는 작업은 그다지 심도있게 시도되지 않았다. 새로운 개념의 도입과 이론의 수입은 빈번히 이루어졌지만, 그것들을 우리의 문화적 틀에서 어떻게 융해하고 새롭게 구조화해야 할 것인가의 통합과 변용의 문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고 보인다. 그렇지만 그런 작업없이 서구의 개념이나 사상이 그대로 우리의 인지적 틀에서 작용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인문학적 체계의 수입과 토착화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거기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나 용어가 자체적인 역사성과 사회성을 전제하고 있으며,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들의 인문학적 체계를 충분히 소화해 낼 수가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그러한 역사성과 사회성은 사회 전체의 인지적 구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부분적 이해만 갖고서 그것을 수용해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 사업은 불교고전어와 고전문헌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의 선조들에 의해 오래 전에 시도되었던 문화적 통합의 하나의 역사적 경험으로서 佛典의 제작과 번역이 가진 의미를 인문학적, 문화학적 지평 위에서 조명하고, 그럼으로써 불교고전이 가진 인문학적 이념을 현대적 지평에서 확대시키는 사명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다.

본 사업은 이와 같은 고전이 가진 인문학적 이념의 현대적 조명이라는 사명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이하 세 가지 점에서 구체적인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 (1) 고전시기에 편찬되거나 번역된 불교 고전문헌의 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탐구와 확립을 위해 불교고전어와 불교고전문헌에 대한 다층적인 접근과 해석의 가능성을 탐구.
- (2) 연구역량이 탁월한 인문학 분야의 불교학 인력을 발굴, 전공영역과 인접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불교문화연구의 수행에 있어 국제적 수준의 성과를 생산할 수 있는 전문연구자 양성.
- (3) 효율적인 연구시스템과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제적인 불교학의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연구자료 및 학술적 담론 소통의 중심점이 될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연구소로 육성.

2. 연구방법론으로서 일차적으로 고전어와 문헌학적 방법론의 연찬.

불교학 내지 불교문헌학 연구자에게 있어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고전 티벳어와 고전 불교한문이라는

네 개의 불교고전어에 대한 훈련은 필수적이다. 이들 고전어 중에서 본 아젠다 수행을 위해서는 산스크리트어와 티벳어, 한문이 일차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다. 대승불전의 편찬과 번역은 문화사적 의의라는 면에서 이들 세 언어에 의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대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문헌을 이해하기 위한 문헌학적 작업에 있어 주로 해당 문헌이 가진 구문론적, 의미론적 내용을 텍스트 내에서만 탐구해 왔다. 사실 그것이 엄밀한 의미에서의 문헌학적 작업임에는 틀림없지만, 이제 우리는 문헌이 가진 역사성을 고려함에 의해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문헌을 이해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텍스트가 원전인지, 번역본인지 아니면 번역에 대한 해석서인지에 따른 구분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텍스트의 성립사적 측면과 번역학적 측면, 수용사적 측면의 세 과정을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전자의 측면이 텍스트의 성격과 관련되고 후자의 측면은 그것의 문화사적 함의에 따른 구분이지만 양자가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여하튼 텍스트를 세 가지 측면에서 구분하고 그것이 구문론적이나 의미론적으로 차이를 보여준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세 과정은 ① 원저자의 의도를 형성하게끔 만들었던 여러 사상적 단초들 ② 이들 단초 중에서 원저자가 의도하고 선택했던 해석을 구별해 내는 것, ③ 타깃언어로 번역되었을 때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번역자의 재해석 가능성 ④ 번역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독자들에게 의해 번역이 수용되는 상황이라는 네 가지 차원의 구별을 전제한다. 이 네 차원의 구별을 통해 왜 불교고전문헌의 연구를 위해 지역적 구분이 필요하고 또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고전문헌들이 선정되어야 하는지도 암시해 준다. 즉 산스크리트어, 티벳어, 고전한문으로 제작된 대승불교의 문헌들이다. 이러한 작업의 궁극적 지향점은 인도불교와 동아시아불교 및 티벳불교에 있어 각각의 사상의 주류적 해석과 그것이 형성되고 변용되고 수용된 문헌의 역사적 과정을 이념사적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어떤 동기에서 이들 지역의 주류전통이 그러한 것으로서 형성되었는지를 탐구하려는데 있다.

### 3. 본 연구소가 HK사업을 통해 기대하는 연구효과는 다음과 같다.

불교는 문명권을 뛰어넘어 아시아는 물론 세계역사상 최초로 다른 문명권에 문헌을 통한 상부구조의 전달을 시도했고 또 지속적으로 이를 이어갔던 위대한 문화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문화학적 의미에서 번역과 해석의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원전과 번역 사이의 간격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불교와 티벳불교에서는 각각 불교사사의 해석학적 작업을 자신들의 불교이해의 과정으로 삼아 사유를 진행해 왔다. 그렇지만 이들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이러한 번역의 문제는 단순히 어떤 용어를 다른 나라의 언어로 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어가 담고 있는 인지적 틀을 다른 나라의 언어가 가진 인지적 틀로 재형성(remoulding)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고는 토착화라는 의미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보인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20세기 이후 도입된 수많은 서구사조들의 번역과 토착화의 문제를 다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과학기술이나 테크닉과 같은 지식들은 수학이나 물리학과 같은 기호로 풀이되고 공유된다. 그렇지만 어떤 인문학적 체계의 수입과 토착화에 있어서 사정은 전혀 다르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나 용어는 역사성과 사회성을 전제하고 있으며,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들의 인문학적 체계를 충분히 소화해 낼 수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그러한 역사성과 사회성은 사회 전체의 인지적 구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부분적 이해만 갖고서 그것을 수용해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본 연구프로젝트는 우리의 선조들에 의해 오래 전에 시도되었던 문화적 통합의 하나의 역사적 경험으로서 번역과 수용의 과정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통해 현대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인문학도들에게 하나의 선행경험을 들려줄 수 있으며 타산지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본 작업 자체는 전통의 '여실한' 복원을 지향하고 있고, 선부르게 전통을 현대적 시각에서 풀이하고자 다른 인접학문의 용어를 빌어 불교고전의 세계를 재단하고자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전통과 현대와의 접목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로서, 그러한 접목의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의 작업과 같은 기초적 작업 없이 서구철학이나 서구종교와 같은 상부구조가 우리의 사유의 틀 속에서 융해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전망과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외래 문명 수용의 성공적 사례 제시 ▪ 외래 문명의 수용에서 번역과 주체적 수용의 문제 제기 ▪ 불교문헌 번역과 수용 사례 연구를 통한 모범적 사례 제시 가능 ▪ 철학, 인문학, 사회학에서 요구되는 외래 문명의 주체적 수용가능성 제시
- 전통의 현대화에 대한 전망 제시 ▪ 이문화(異文化)의 번역과 해석, 수용이라는 본 프로젝트의 연구 관점에서, 전통의 현대적 번역과 해석, 수용의 문제에 해결책 제시 ▪ 한국학, 국문학, 민속학, 사학 등에 전통의 현대적 수용 문제에 대한 성공적 가능성 제시
- 불교학 연구의 모델 제시 ▪ 문헌학적 방법론의 도입과 새로운 통합적 방법론의 개발 시도 ▪ 세계적 수준의 연구인력의 채용과 육성으로 한국 불교학 연구를 선도 ▪ 우수 연구진 확보와 인접 학문간 네트워크를 통해 종교학, 심리학, 복지학, 생태학 등에 불교적 관점과 해결책 제시
- 선도적 연구소 운영의 모범 제시 ▪ 경쟁시스템 및 정년보장시스템의 도입으로 우수 연구성과의 지속성 확보 ▪ 해외 우수 연구소와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세계적 네트워크 구축 ▪ 우수 연구인력의 재생산 구조 확보 ▪ 대학원과 연계한 학문 주도 세력 양산